

Comparis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by Company Size and Type: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cy Policy Assessment

기업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 비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관점에서

Kim, Hui Young

Received: January 2025

Revised: June 2025

Accepted: November 2025

Published: April 2026

Copyright: © 2026 by the authors, Licensee ABR, Seoul, Korea.

1 (주) 씨드젠; ken@seedgen.kr

* Correspondence: ken@seedgen.kr

Abstract: The growing emphasis on ESG management has elevated data privacy protection as a key corporate competitiveness factor. While cybersecurity and data privacy are now recognized as essential ESG risk elements by global investors, empirical evidence on how company size and type relate to privacy protection levels remains limited. (1) Background/Purpose: This study evaluat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across 33 domestic and global companies operating in the Korean market to examine whether company size, revenue scale, service platform type, and domestic versus global status are associated with differences in privacy protection. (2) Methodology/Approach: Using the Privacy Policy Assessment System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introduc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of Korea in 2024, the study assessed the publicly available privacy policies of 33 companies across 11 service sectors as of August 1, 2024. Evaluation covered 20 items, 29 indicators, and 41 sub-indicators across three domains: Compliance (적합성), Rights Protection (권리보장), and Security (안전성). Companies were sourced from Rankey.com site rankings. (3) Findings: Domestic companies generally achieved higher compliance rates with Korean privacy laws than global companies.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revenue scale and privacy protection levels. Technical protection compliance ranged 30–75% and policy protection ranged 32–75%, indicating wide variance across companies. No company was found to score high on policy protection while scoring low on technical protection, suggesting that meeting policy standards is more difficult than meeting technical standards. (4) Originality/Value: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empirical cross-sector evaluation of privacy protection levels in the Korean market using the newly introduced Privacy Policy Assessment System, demonstrating that global company status—not revenue size—is the primary differentiator of privacy compliance, and identifying actionable improvement priorities for policymakers and companies.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Policy Assessment; ESG; Data Privacy; Compliance; GDPR; Cybersecurity; Platform Companies; Domestic vs. Global Compan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Privacy by Desig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 Int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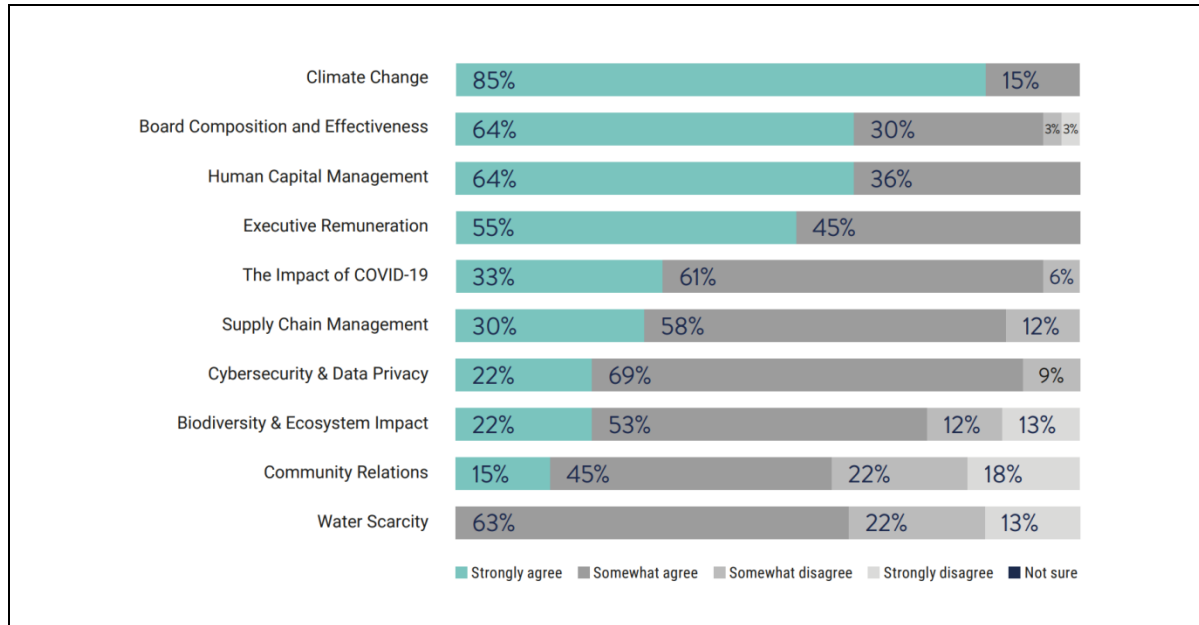
1.1 Research Background

최근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ESG¹ 경영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의 ESG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ESG와 관련하여 주로 탄소 배출량 감소나 기업의 윤리, 인적자본의 개발 등이 주로 논의되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¹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Morrow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에 따르면 '공급망 관리', '사이버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ESG 리스크 상위 10개 요인에 포함될 만큼 사이버보안(데이터보안)은 ESG 경영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Figure 1. Top ESG Risks (ESG의 상위 리스크) — [Figure to be inserted by author]



Source: Morrow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

기업의 정보유출 침해사고는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와 기업 평판을 훼손시키며,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대중의 개인정보 보안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투자자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ESG 성과 지표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²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인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지를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2 Research Purpose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비스 중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기업들이 유관 법률의 준수 수준에 따른 차이와 그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기준에 맞추어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고자 한다.

- 기업 규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는지
- 각 서비스 플랫폼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 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 국내기업과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간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유관 법률 준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²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하여 수행된다.

- 다양한 쇼핑 서비스 플랫폼 형태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1.3 Research Methods

1.3.1 Selection of Survey Subjects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랭키닷컴³에서 전체사이트 순위정보를 참조하여 실생활에서 정보주체가 빈번히 사용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개의 법인에서 여러 서비스가 있는 경우는 해당 법인을 기준으로 선정⁴하였다.

Table 1. Survey Target Sectors and Number of Companies (조사 대상 분야와 대상 기업 수)

분류	대상수	글로벌기업 포함유무
배달플랫폼	3	
빅테크	4	○
숙박 플랫폼	4	○
엔터테인먼트	5	○
여행 플랫폼	2	
스트리밍 서비스	4	○
새벽 배송	1	
온라인 쇼핑	4	
옴니 쇼핑	2	
중고 쇼핑	1	
홈쇼핑	3	

분류는 배달 플랫폼, 빅테크, 숙박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여행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새벽 배송, 온라인 쇼핑, 옴니 쇼핑, 중고 쇼핑, 홈쇼핑 등 11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그 대상은 국내 서비스 중인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업들은 다양한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고, 그 서비스 영역 또한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업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업의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⁵하였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믹스가 심화되어 경계가 애매해진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이나 옴니 쇼핑으로 구분하였다.

1.3.2 Selection of Evaluation Items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수립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한

³랭키닷컴(<http://www.rankey.com>)은 국내 최대의 PC 및 모바일 패널을 기반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이용현황을 분석하는 시장조사 기업이다.

⁴세부 사항은 '부록 1: 조사 대상 분야와 대상 기업 수'를 참조한다.

⁵숙박플랫폼에서는 단순 숙박 정보 매개 이외에도 여행 상품 제공, 맛집 정보 제공, 여행지 소개 등의 정보가 다양해진 경우는 여행 플랫폼으로 분류하였다.

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⁶를 참조하여 항목을 선정하였다.

Table 2. Evaluation Domains and Items (평가 분야와 항목)

평가 분야	항목 (20개)
I. 적합성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파기절차 및 방법
	5.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판단기준
	7.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8. 국외 수집 및 이전
	9.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10.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1. 자동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2.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II. 권리보장	13.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관련 부서에 관한 사항
	16.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7. 권익침해 구제기관에 관한 사항
III. 안전성	1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20. 자동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적합성, 권리보장, 안전성 등 3가지 평가 분야에서 20개 항목으로, 29개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41개 항목⁷으로 나누어진다.

적합성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명확하

⁶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었다.

⁷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록 2: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한다.

고 적절한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리보장**은 정보주체(개인)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소를 평가하는데, 정보 열람·정정 요청, 삭제 요청,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등을 포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안전성**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평가하며, 데이터 암호화, 접근 통제, 보안 시스템 설치 등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이 되는 시점은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2. Theoretical Framework and Literature Review

2.1 Key Linkages Between ESG and Cybersecurity

ESG와 사이버보안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최근 기업 경영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차점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과 환경 리스크 관점에서 환경 재난(예: 에너지 시설 해킹,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공격)은 ESG와 사이버보안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며, 사이버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으로, Governance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고객 및 직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ESG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 내부의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예: AI 데이터의 편향 방지, 고객 데이터 오용 금지)도 ESG의 사회적 책임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ESG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며, 훌륭한 사이버 보안 정책과 사고 대응 계획은 기업의 ESG 점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JP모건 체이스는 ESG 전략의 Governance 항목에서 사이버보안을 핵심적으로 다루며, 데이터 보호와 규제 준수를 강조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데이터 보안을 ESG 전략에 통합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2.2 Domestic Research

2.2.1 Effects and Causal Relationship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행하였을 때, 그 효과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 기업 및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실증분석 및 그 시사점"⁹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자가 반드시 침해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가 많은 기업이 침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역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매출 등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3 International Research

2.3.1 The GDPR Effect

각국 중앙은행 및 여러 금융기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경제정책연구센터는 "The GDPR effect: How data privacy regulation shaped firm performance globally"¹⁰를 통해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 기업 성과에 미

⁸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24-14: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위험과 과제.

⁹신일순(2016),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¹⁰Giorgio Presidente, Carl Benedikt Frey (2022), The GDPR effect: How data privacy regulation shaped firm performance globally,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GDPR 도입 이후 기업의 이익이 평균 8% 감소하고, 매출이 2%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2.3.2 Data, Privacy Laws and Firm Production

전미 경제연구소는 "Data, Privacy Laws and Firm Production: Evidence from the GDPR"¹¹를 통해 GDPR 시행이 기업의 데이터 저장 및 처리 활동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GDPR로 인해 EU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을 26%, 데이터 처리를 15% 감소시켰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ESG 관련 연관성이나 국내외 연구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가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성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 준수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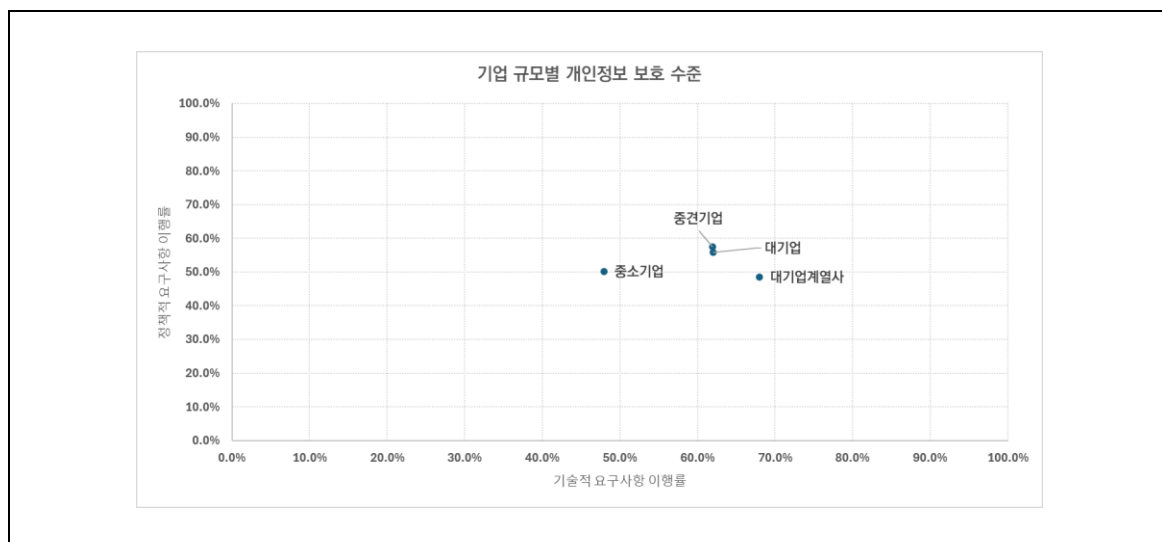
3. Case Analysis

3.1 Comparis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by Sector

3.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by Company Size

기업 규모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업 규모가 클수록 기술적 보호와 관리적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은 기술적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제한적이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법적 준수 체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기업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최소 매출이 100억 이상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개인정보 보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판단된다. 반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기술적·관리적 보호 수준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며, 성장과 함께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2.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by Company Size (기업 규모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수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첨단 기술과 강력한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책적 및 법적 보호 체계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적 부분이 50~70% 이행율을 보이고, 정책적 부분이 50~60% 이행율을 보이는 것은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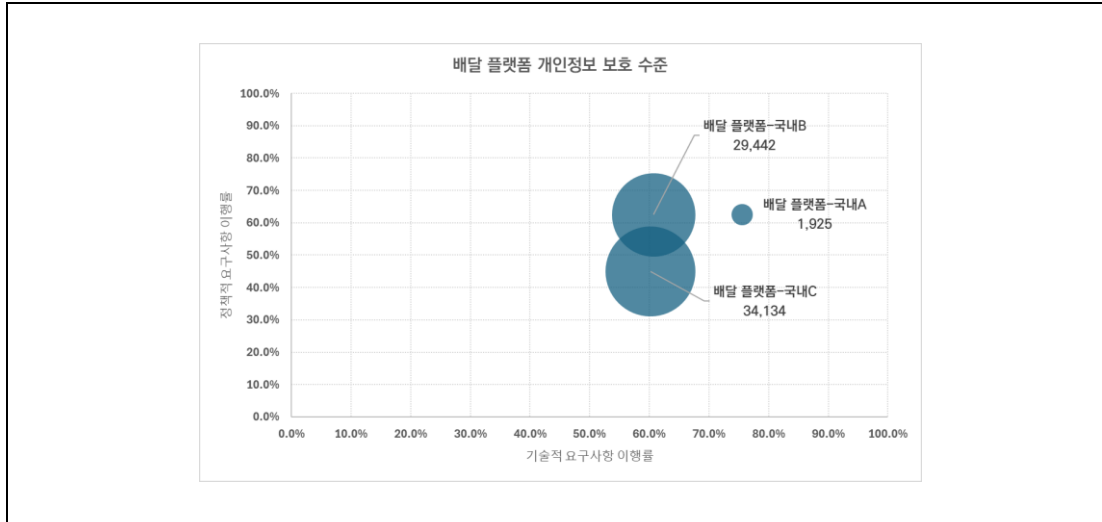
¹¹Mert Demirer, Diego J. Jiménez Hernández, Dean Li, Sida Peng (2024), Data, Privacy Laws and Firm Production: Evidence from the GDP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1.2 Delivery Platfor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배달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수준에서는 국내A사의 수준이 특별히 더 높고 국내B와 국내C사의 경우 기술적 보호 수준은 비슷하였다. 정책적 측면의 보호수준은 국내B사와 국내C사가 비슷하였다.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A사가 기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의 보호수준이 모두 높게 나왔다.

Figure 3.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Delivery Platforms (배달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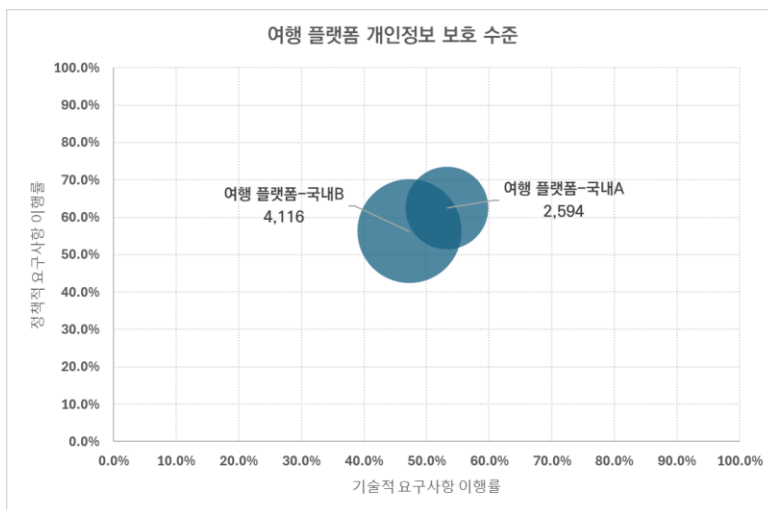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그러나, 기술적 부분이 60~75% 이행율을 보이고, 정책적 부분이 45~60% 이행율을 보이는 것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배달 플랫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해 추가적인 강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1.3 Travel Platfor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여행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보호 수준에서는 국내 B사의 수준이 국내 A사보다 더 높았으며, 관리적(정책적) 보호 수준 역시 국내 B사가 국내 A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A사가 기술적 보호와 관리적 보호 수준 모두 낮게 나타났다.

Figure 4.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Travel Platforms (여행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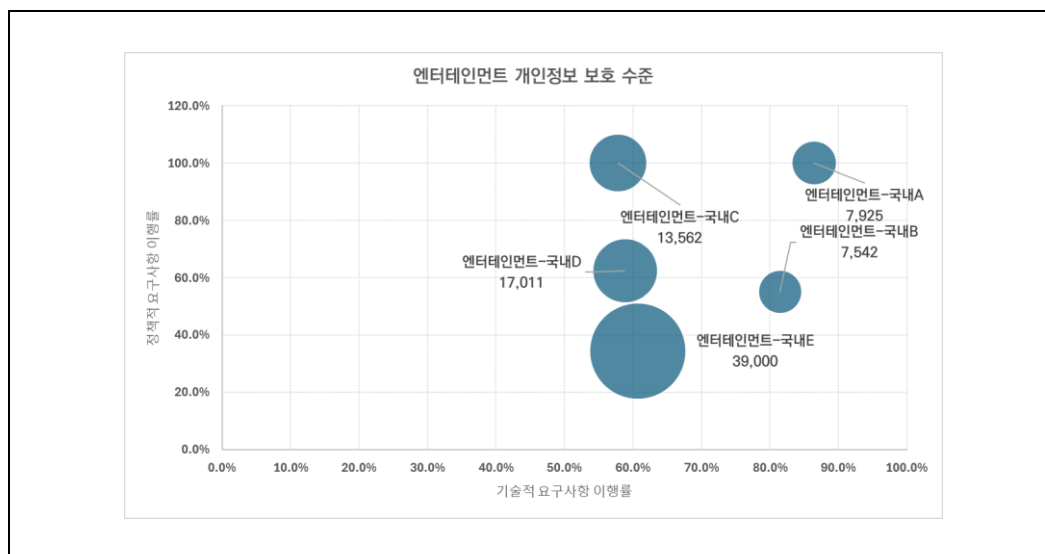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기술적 보호 수준이 50~60% 이행율을 보이고, 정책적 보호 수준이 55~65% 이행율을 보이는 것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두 플랫폼 모두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과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1.4 Entertainment Platfor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보호 수준에서는 국내 A사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국내 B사가 뒤따랐다. 정책적 측면의 보호 수준은 국내 A사와 국내 C사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출 측면에서는 국내 E사가 가장 높은 매출 볼륨을 기록했지만, 기술적 보호와 정책적 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A사는 기술적 보호와 정책적 보호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다.

Figure 5.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Entertainment Platforms (엔터테인먼트 개인정보 보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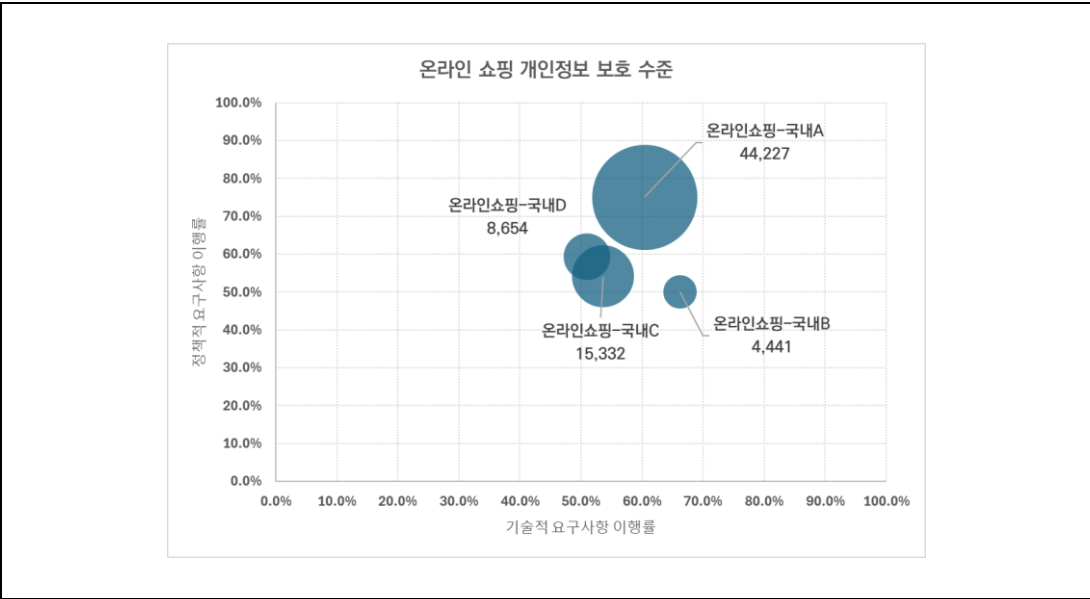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기업간 정보보호수준의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1.5 Online Shopp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수준에서는 국내 A사의 수준이 특별히 더 높았으며, 국내 C사와 국내 D사의 경우 기술적 보호 수준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정책적 측면의 보호 수준은 국내 C사와 국내 D사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매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 B사가 낮은 정책적 보호 수준을 보였으며, 매출이 가장 높은 국내 A사는 기술적 보호와 정책적 보호 수준이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6.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Online Shopping Platforms (온라인 쇼핑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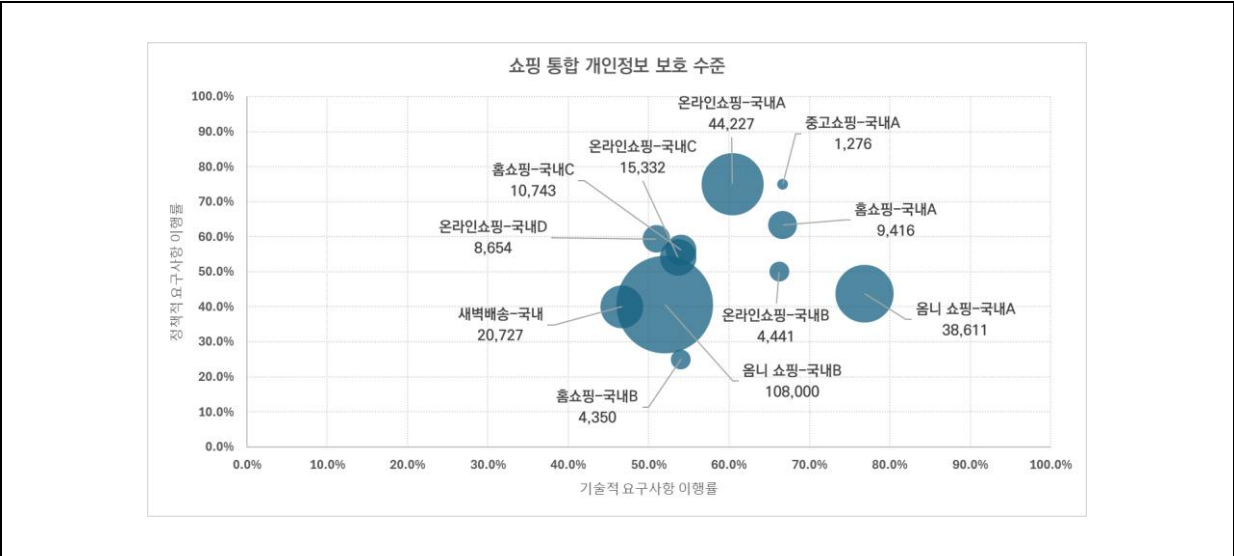
기술적 보호 수준이 50~65%의 이행율을 보이고, 정책적 보호 수준은 50~75%의 이행율을 보이는 것은 각 기업간 개인정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기술적, 정책적 양측 모두 더 높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1.6 Integrated Shopp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온라인 쇼핑, 중고쇼핑, 홈쇼핑, 옴니쇼핑, 새벽 배송 등 쇼핑유형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보호 수준에서는 옴니 쇼핑-국내 A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옴니 쇼핑-국내 B와 온라인 쇼핑-국내 C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보호 수준에서는 온라인 쇼핑-국내 A와 중고 쇼핑-국내 A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출 측면에서는 옴니 쇼핑-국내 B가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으나, 기술적 및 정책적 보호는 낮은 수준에 머무른 반면, 중고 쇼핑-국내 A는 낮은 매출이었지만 기술적 보호와 정책적 보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Figure 7. Integrated Shopping Platfor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쇼핑 통합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전반적으로 기술적 보호 수준이 45~75%, 정책적 보호수준이 25~75% 이행율을 보이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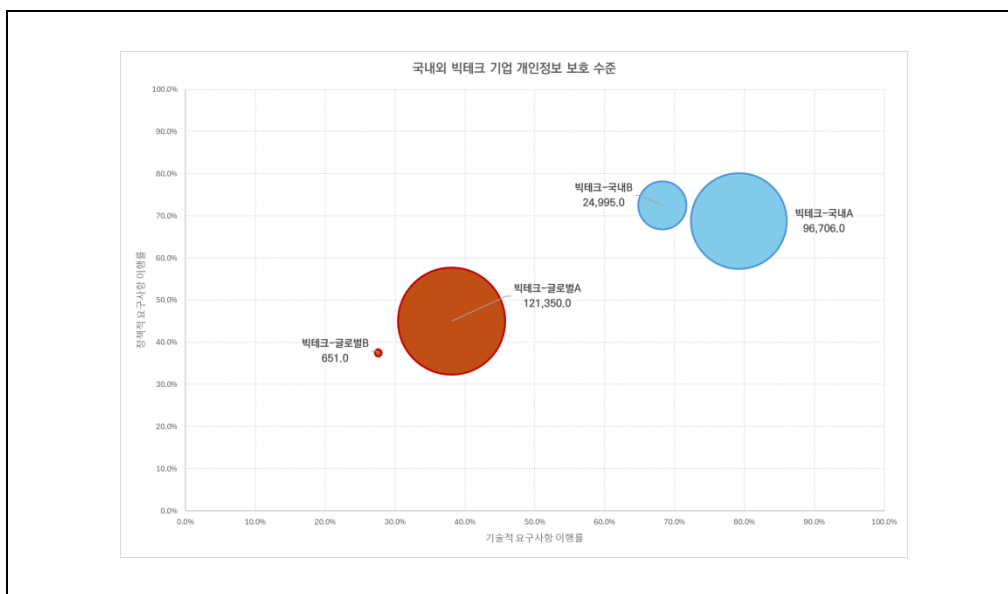
3.2 Comparis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s: Domestic vs. Global Companies

3.2.1 Big Tech Companies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보호 수준과 정책적 보호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빅테크-국내 A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80%,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7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빅테크-국내 B는 기술적 보호 수준 약 70%, 정책적 보호 수준 약 70%를 기록하며 국내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매출과 무관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빅테크-글로벌 A는 매출 볼륨이 121,350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38%,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45%로 중간 수준에 머물러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빅테크-글로벌 B는 기술적 보호 수준 약 28%, 정책적 보호 수준 약 40%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기술적·정책적 보호조치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Figure 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Domestic and Global Big Tech Companies (국내외 빅테크 기업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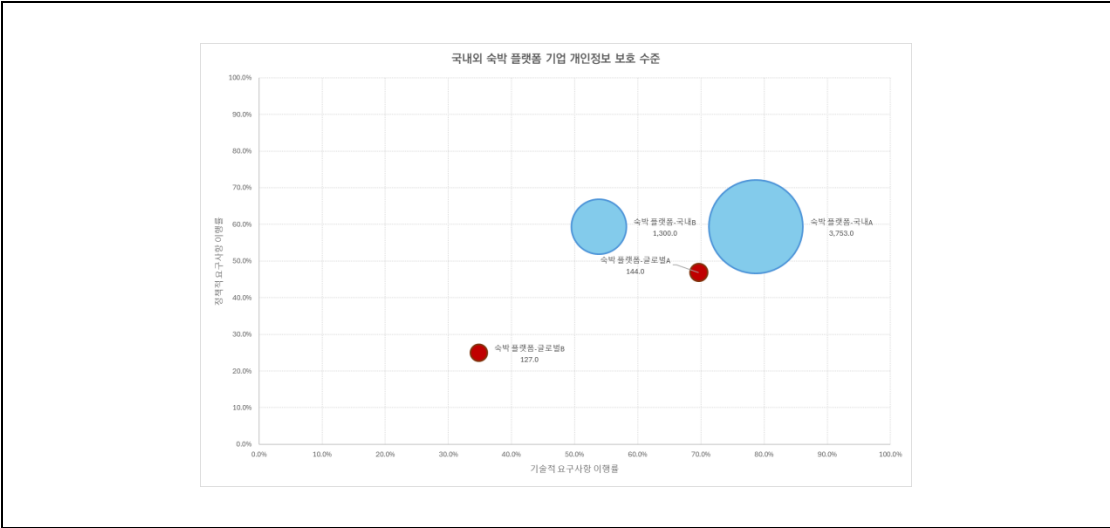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기술적 보호 수준은 28~78%, 정책적 보호수준은 38~73% 정도로 나타나, 국내외 기업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들은 낮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3.2.2 Accommodation Platform Companies

국내외 숙박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숙박 플랫폼-국내 A는 기술적 보호 수준 약 80%, 정책적 보호 수준 약 60%의 이행율을 보였다. 숙박 플랫폼-국내 B는 기술적 보호 수준 약 55%, 정책적 보호 수준 약 60%였으며, 매출 볼륨은 1,300억으로 국내 A사에 비해 낮았다.

반면, 글로벌 플랫폼 A와 글로벌 플랫폼 B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각각 약 70%와 35%,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47%와 25%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매출 간의 연관성이 무관함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보여준다.

Figure 9.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Domestic and Global Accommodation Platforms (국내외 숙박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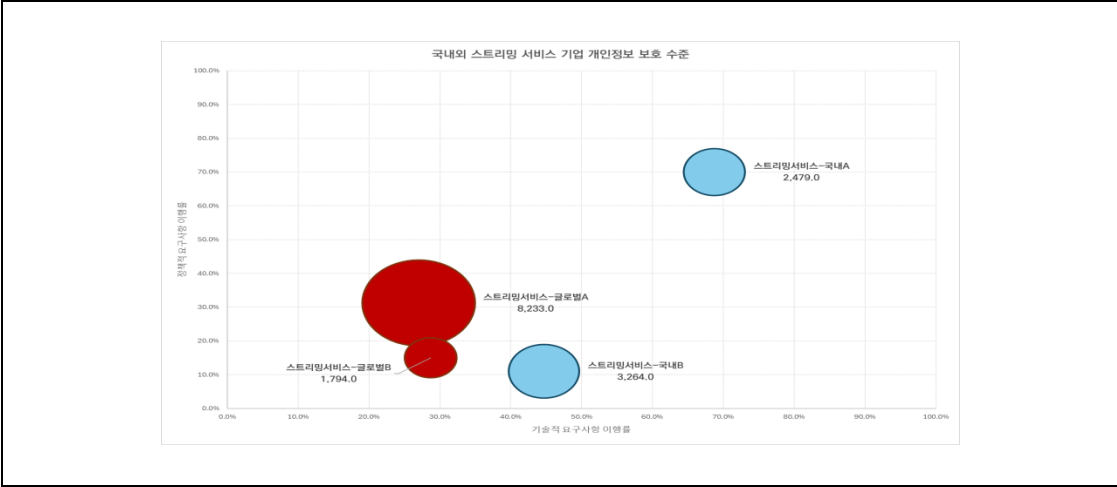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들보다 높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매출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나, 기술적 보호 수준이 55~75%, 정책적 보호수준이 60%에 머물러 있어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3.2.3 Streaming Service Companies

국내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스트리밍 서비스-국내 A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68%,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70%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스트리밍 서비스-국내 B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45%,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10%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행율을 나타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글로벌 A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27%,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30%로 나타났으며, 매출 볼륨은 8,233억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 규제 준수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스트리밍 서비스-글로벌 B는 기술적 보호 수준이 약 27%, 정책적 보호 수준이 약 15%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Figure 1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Domestic and Global Streaming Services (국내외 스트리밍 기업 개인정보 보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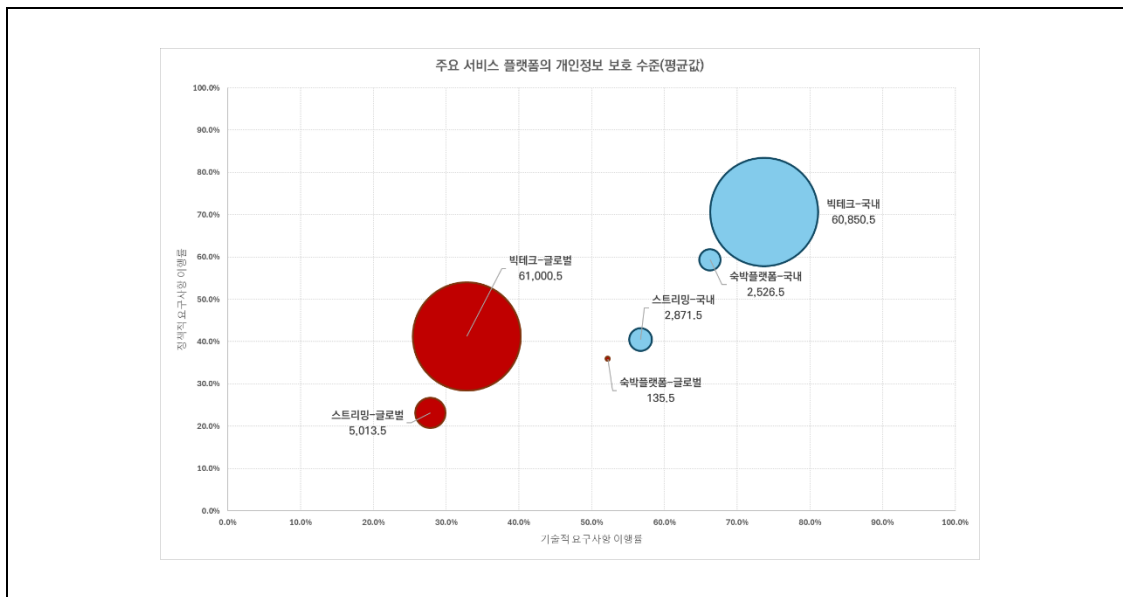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숙박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들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정책적 관리가 전반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3.2.4 Key Service Platforms Overall

국내외 서비스 기업들 중 빅테크, 숙박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만, 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보호 수준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은 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것보다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으로 인한 차이가 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1.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Key Service Platforms Combined (주요 서비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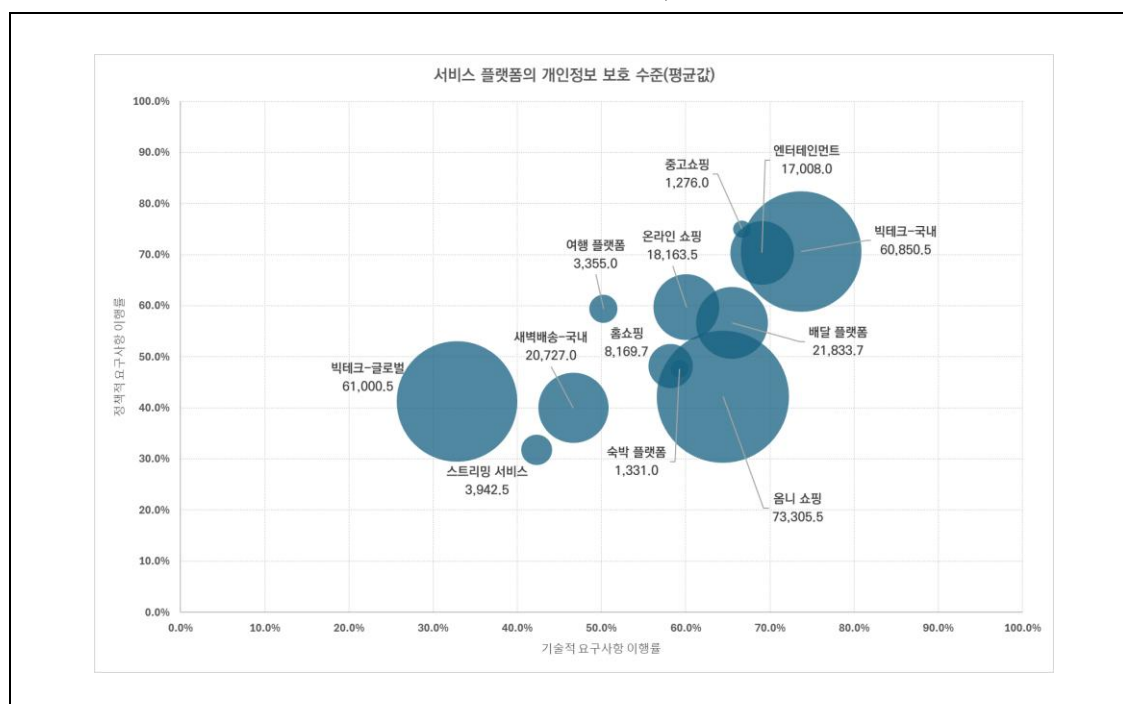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3.3 Integrated Comparison Across All Service Platforms

본 연구에 평가 대상이 되었던 33개의 기업을 각 부문별로 평균을 내어 한 개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기업이 개인정보보호수준이 높다.
- 매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 수준의 이행 수준은 30~75%, 정책적 수준의 이행 수준은 32~75%로 상당히 넓은 구간을 가지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 기술적 수준은 낮지만, 정책적 수준은 높은 부분에 포지셔닝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술적의 스펙트럼은 넓고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정책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술적 수준 이행보다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2. Over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All Service Platforms (서비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Note: Bubble size = revenue (KRW 100 million).

4. Conclusions

4.1 Implications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비스 중인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기업들이 유관 법률의 준수 수준에 따른 차이와 그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지 확인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이행은 기업 매출액의 상관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 이유는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시장 경쟁 우위를 위한 브랜드 가치 향상이 대두되어 고객 신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물론 GDPR¹² 등의 벌금이나 과징금 등을 회피¹³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개인정보 준수 점수가 높은 기업 일수록 매출 성장률이 높다는 IBM의 보고서¹⁴나 Cisco의 Privacy Benchmark Study¹⁵가 있었다.

그러나 금번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나 매출규모는 개인정보 보호수준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았다. 유의미한 데이터로는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기업이 국내 법률 준수 이행률의 수준이 높았다. 33개의 기업의 개인정보 기술적 수준의 이행 수준은 30~75%, 정책적 수준의 이행 수준은 32~75%로 상당히 넓은 구간을 가지며,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¹²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규정.

¹³2021년, 아마존은 GDPR 위반으로 7억 4,6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¹⁴IBM 보고서(2023):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한 기업은 고객 이탈률을 평균 3% 감소시켜 매출 증가에 기여.

¹⁵Privacy Benchmark Study (Cisco): 개인정보 보호 준수를 강화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2.7배 더 높은 투자수익률(ROI)을 기록.

또한, 기술적 수준은 낮지만 정책적 수준은 높은 부분에 포지셔닝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정 수준 이상의 정책적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준수하는 것은 기술적 수준 이행보다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준수와 경영 성과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를 통해 의도된 개인정보보호를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독기관의 규제 압력에 대비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내부 정책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데이터 분석,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의 개인정보 공유,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 사각지대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Recommendations

평가 대상이 된 33개의 기업은 어느 누가 판단해도 규모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잘 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인정보 보유량도 상당한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들도 금번에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는 직후에는 높지 않은 이행율을 보이게 된다.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보호를 수행해야 하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 등 재정적이거나 컨설팅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 사업 등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요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글로벌 기업이 그렇지 않지만,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한다.

4.3 Limitations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기업의 정책적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기술적 보호 수준평가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으로 기업의 내부의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이행하더라도 처리방침을 통해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율은 떨어진다. 이러한 부분은 절차적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실제적인 이행과 상관없이 이행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방침은 정보주체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하기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성실히, 지체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 기업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실사 등 실증을 통한 검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되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은 나왔더라 하더라도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감안하여 본 연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Appendix

Appendix 1. Survey Target Sectors and Company List (조사 대상 분야와 대상 기업)

분류	대상	대상수	글로벌기업 포함유무
배달플랫폼	배달 플랫폼-국내A	3	
	배달 플랫폼-국내B		
	배달 플랫폼-국내C		
빅테크	빅테크-국내A	4	○
	빅테크-국내B		
	빅테크-글로벌A		
	빅테크-글로벌B		
숙박 플랫폼	숙박 플랫폼-국내A	4	○
	숙박 플랫폼-국내B		
	숙박 플랫폼-글로벌A		
	숙박 플랫폼-글로벌B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국내A	5	
	엔터테인먼트-국내B		
	엔터테인먼트-국내C		
	엔터테인먼트-국내D		
	엔터테인먼트-국내E		
여행 플랫폼	여행 플랫폼-국내A	2	
	여행 플랫폼-국내B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서비스-국내A	4	○
	스트리밍서비스-국내B		
	스트리밍서비스-글로벌A		

	스트리밍서비스-글로벌B		
새벽배송	새벽배송-국내	1	
온라인 쇼핑	온라인쇼핑-국내A	4	
	온라인쇼핑-국내B		
	온라인쇼핑-국내C		
	온라인쇼핑-국내D		
옴니 쇼핑	옴니 쇼핑-국내A	2	
	옴니 쇼핑-국내B		
중고 쇼핑	중고쇼핑-국내A	1	
홈쇼핑	홈쇼핑-국내A	3	
	홈쇼핑-국내B		
	홈쇼핑-국내C		

References

Korean References

신일순 (2016).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효과 및 인과관계: 기업 및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대한 실증분석 및 그 시사점.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자본시장 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2024-14: 금융기관의 사이버보안 위험과 과제.

International References

Giorgio Presidente, Carl Benedikt Frey (2022). The GDPR effect: How data privacy regulation shaped firm performance globally.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Mert Demirer, Diego J. Jiménez Hernández, Dean Li, Sida Peng (2024). Data, Privacy Laws and Firm Production: Evidence from the GDP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Online References

Morrow Sodali. (2021).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 <http://www.sodali.com>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Directors' Duties in an Evolving Risk and Governance Landscape. <https://corpgov.law.harvard.edu/>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https://www.pipc.go.kr>